

2012 북한의 정치사회 변동과 김정은 체제 전망

공용철(KBS 다큐멘터리국 책임프로듀서)

◎김정은 체제의 8개월 평가

- 리영호의 숙청이 보여 주듯이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와 희망 김정은이 당·정·군을 확실하게 장악한 것으로 판단됨
- 김정은의 비동맹회의 참석과 장성택의 방중은 김정은 체제가 내부적인 권력 이양과 체제안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새로운 지도체제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선 민심 얻기가 중요한데, 김정은은 민심도 확실하게 장악해 가고 있음
- 김정은 체제 8월,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넘치고 영도자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의지가 분출하고 있음.

◎2012년 8월의 북한 동향

- 6·28조치라고 알려진 내부의 개혁 동향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음(10여 명의 북한 주민 증언, 8월 현재)
- 가장 큰 변화는 민심의 변화임, 지난해까지 대다수 주민들의 정서는 “전쟁이 나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였음, 이 말에는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과 함께 현재의 질서가 바뀌길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었음.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전쟁 얘기는 쏙 들어가고 개혁·개방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넘쳐나고 있음.
- 특히 2-30대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변화 열기가 더욱 강함, 외국어와 경제 지식, 국제정세와 중국의 발전상을 학습하려는 학습열기가 충만해지고 있음.
- 1983년 후계자 시절에 김정일이 중국을 비밀리에 방중하고 개혁·개방의 성과를 몸소 체험한 후 1984년 8·3인민 소비품 생산운동, 농민시장 활성화 등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개혁 조치들을 내놓아 개혁·개방의 열기가 넘쳤는데 30년 만에 비슷한 분위기가 재연되고 있음.

◎김정은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열기 고조

- 김정은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열기가 고조되고 있음. 중하층 주민들의 경우 4·15를 계기로 많은 선물을 하사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이면서 최고 지도자가 인민경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기울여준 것에 대해 특히 감사해 하고 있

음. 대중과 스킨십을 확대하고 대중지향적인 정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충성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음.

-계층별로 보면 인민들의 충성열기가 특히 고조되었음. 정치 공학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인민'과 '대중'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인민은 체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가계', '항일계'(투사계), '전사자 피살자 가족'이고 대중은 인민 아래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피지배 계층임. 북한의 지배세력은 이 가운데 자신들이 인민이라고 생각하는 가계와 항일계, 전사자 피살자 가족들만 잘 건사하면 체제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음. 북한에서 전사자 피살자 가족이란 6·25전쟁 참가자, 전사자, 전쟁 중 학살당한 피살자, 전후의 냉전과정에서 희생된 사회주의 애국 열사를 말함.

-인민들의 충성열기가 고조 된 것은 전사자 피살자 가족들에게 외화벌이 기회를 확대해 주었다는 점임. 200만 안팎으로 추정되는 전사자 피살자 가족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외화벌이 과정에서 소외당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표출해 왔음. 북한의 계층구조에서 달러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 외화경제에 기반을 둔 사람들을 상류층이라고 볼 수 있음. 그동안은 군부와 특수단위, 가계, 항일계가 외화벌이와 대외무역을 독점해 왔고, 김정은으로선 전사자 피살자 가족들의 달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지배연합의 외연을 확장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음.

-올해 들어서 중국과의 노동협력이 확대되면서 전사자 피살자 가족들에게 해외파견 근로의 기회를 줄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전사자 피살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핵심계층 내에서 '김정은 원수님 만세'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음.

◎중국과의 노동협력 실태

-2012년 들어서 북한 노동력의 중국 파견이 급증하고 있음, 정확한 통계를 뽑기는 어려우나 요녕성 단둥시 일대에만 올해 수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파견되었다고 현지의 중국인들이 증언하고 있음. 6월 이후 1일 200-300명씩 3개월 가까이 북한 근로자들이 단둥으로 들어왔다고 함. 파견된 근로자들 가운데 남성이 40%, 여성이 60%가량이라고 함.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주로 의류나 봉제, 신발, 냉동창고, 수산물 가공업 등에 종사하고 있음. 중국인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북한 근로자들을 원하는 사업장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고 함.

-단둥시 기준으로 중국인들의 인건비가 월 400달러 안팎인데 북한 근로자들은 250달러를 받기로 계약하고 들어옴. 근로자들은 임금으로 받은 250달러 가운데 100달러를 당 자금으로 내고 숙식비로 50달러 내외를 사용하고 나면 월

100달러 내외를 개인 몫으로 챙길 수 있음.

-단동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 역시 다른 해외 파견근로자들처럼 공장 내에서 단체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음. 다만 관리인들이나 주방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중국의 시장에 나와서 야채나 식재료를 구입해가기 때문에 단동의 재래시장 곳곳에 북한 주민들이 늘어났음.

◎김정은 체제 전망

-1980년대 초중반 북한을 휩쓸었던 개혁·개방 열기는 천안문 사태와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로 싸늘하게 식었음. 2012년은 중국의 정치상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천안문 사태와 같은 체제위협적 동요가 없을 것으로 추정됨. 북한의 개혁·개방의 열기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부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는 뜻임.

-내부 개혁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 우선 기업개혁의 경우 외부 자본의 수혈이 필수적임. 그런 맥락에서 장성택의 방중에서 차관 얘기가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임. 농업개혁의 경우 국내에서 분조단위의 축소와 가족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가 놓여있음. 약 400-500여명의 농장원들이 일하는 북한의 협동농장에 10%이상이 간부임, 농사를 짓지 않고 놀고먹는 계층이 10%라는 얘긴데 가족농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이런 간부들도 힘든 농사일을 해야 함. 그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일하게 할 것인가가 북한 농업개혁의 핵심과제임. 즉 개혁과정에서 현재의 기득권 계층이 소외당하지 않으면서 파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핵심 과제임.

-내부의 개혁이 지난한 과제임에 반해 대외 개방은 훨씬 양호한 조건임, 무엇보다도 중국의 발전이 눈부시고 중국의 발전에 따른 개발이익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부분적인 조치만으로 당국이 필요로 하는 외화를 상당부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전술한 바와 같이 전사자 피살자 가족들의 달러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국내 정치적 압박,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의 안정화를 바라는 중국의 국가 이익, 긴 호흡으로 경제 재건과 체제안정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김정은의 정치적 입장 등을 고려할 때 특구 중심의 부분적인 개방조치들은 지속될 것임.

-개방방법으로는 장성택의 방중에서 드러난 것처럼 중기적으로는 나선과 황금평, 위화도 특구 개발과 활성화가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노동력 파견 확대를 통한 외화벌이가 될 것임.

-김정은 체제는 내부의 권력 장악과 주민들의 민심을 기반으로 상당기간 순항할 것으로 예상됨.

◎북한의 부분적인 개방조치와 중국을 통한 남북관계 활성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는 경색돼 있지만 중국을 통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는 활성화되고 있음

-경제적으로는 한중무역의 증가, 북중무역의 증가라는 틀속에서 남북경협이 여러 가지 형태로 확대되고 있음(중국을 통한 남북 무역 증가, 청도의 한국기업들 북한에 위탁가공 등),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경쟁력 상실 위기.

-북한이 부분적인 개방정책을 취하면서 중국으로 나오는 북한 주민들이 급격히 증가, 중국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인적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음(경협 측면에서)

-북한의 부분적인 개방 가속화는 중국이라는 완충지대에서 풀뿌리 차원의 새로운 남북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최근 북한주민의 의식변화 실태

임순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990년대 이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지속됨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 의식 변화가 확산, 심화되어 가고 있음.

○ 북한주민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의식변화는 자본주의 체득 및 수용, 체제자긍심 및 지도자에 대한 신뢰 약화, 남한사회·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중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개방 욕구, 가치의식 변화 등으로 집약할 수 있음.

○ 경제난이 지속됨에 따라 국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장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해오면서 북한주민들은 자본주의 경제를 자연스럽게 체득, 수용하게 됨.

- 또한 1980년대 말부터 북·중 접경지역으로부터 빠르게 확산되어 온 이른바 자본주의 ‘황색바람’은 북한주민들 사이에 사상적 이완과 가치관 변화를 초래

○ 경제난으로 인해 식량배급제, 무상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 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데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최고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 심화되는 등 북한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자긍심이 크게 약화됨.

○ 1980년대 말 이래 북한주민들 사이에 남한 관련 녹화물 시청, 남한 상품과 지원품 목격 및 사용 등을 통해 남한 사회·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당국이 단속 및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중국 왕래 및 텔레비전 시청률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변화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달라진 중국의 모습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체제 개방의 의의 및 필요성을 인식케 함.

- 북한주민들은 중국이 북한보다 잘 사는 나라이고 주민 생활용품의 상당부분을 중국제품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개방을 해서 경제발전을 이룬 모범사례로 인식

- 개혁·개방 및 경제부문에서의 자본주의 도입으로 크게 성장한 중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체제개방에 대한 관심 및 욕구 증대

- 그러나 중국에 대한 북한주민의 감정 내지 인식은 대체적으로 부정적

○1980년대 말부터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북한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는 1990년대 이래 식량난 등 경제난을 겪으면서 확산, 심화되었으며 부분적·제한적 체제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가속화됨.

- 경제난 이래 북한주민들의 가치의식은 정치·사상을 우선으로 하는 집단중심의 사회지향적인 것으로부터 돈·물질을 우선으로 하는 자아중심의 개인지향적인 것으로 변화

- 199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는 화폐개혁(2009.11) 이후 보다 심화, 가속화되는 추세

○화폐개혁 조치 이후 주민 생활이 보다 더 악화됨에 따라 당과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매우 높아짐.

-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적 시혜가 줄어들고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면서 북한주민들 사이에 당·국가와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자긍심이 약화되었으며 ‘인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확산

○화폐개혁 조치로 인해 생활이 더 어려워진 데 대해 북한주민들은 특히 간부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탓하며 간부들이 인민들의 생활고를 파악할 수 없도록 최고지도자의 눈을 가리는 행태를 일삼는다고 비난함.

-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생계유지를 위한 사경제활동에서의 비사회주의적 행위, 또는 사회·조직 이탈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무마하기 위해 간부들에게 뇌물(돈)을 상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이로써 북한주민들은 간부들을 부정부패한 사람들로 인식

○당·국가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불신과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통일에 대한 소망으로 표출되기도 하는 바, 전쟁을 통해서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서 나라에 변화가 있고 생활이 나아졌으면 하는 막연한 소망을 갖고 있음.

- 북한주민들은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아주 못 사는 나라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아주 강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전쟁을 통해서라도 생활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대

○정치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의식은 소극적·수동적이며 정치에 대해 무관심한 편이었으나 경제난이 지속됨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 정치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식이 형성, 확산되었으며 화폐개혁 이후 보다 강화되어 갔음.

○경제난이 심화되고 주민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부 주민들 사이에 권력 세습에 대한 반감도 형성되고 있는 바, 이들은 남한방송을 듣고 보면서 다당제, 대통령 선거제 등에 대해 알게 되고, 이로써 대를 이은 권력세습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다고 함.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해 기대도 관심도 없으며 오직 생계유지에 급급한 실정임.

- 정치를 누가 하던지 간에 주민 생활은 달라질 것이 없으며 정부는 주민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불평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정치, 또는 후계자 김정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

○국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지고 중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감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 중국식 개방에 대한 기대 및 요구가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화폐개혁’ 조치 이후 보다 더 심화, 가속화되어 가는 추세임.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 등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의 사회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요인으로는 남한 및 중국변화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지도 증가, 빈부격차 체감 및 간부들의 부정부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증대, 사회주의제도 및 지도자에 대한 불신 등 체제자긍심 약화 등으로 집약됨.

○식량난 등 경제난이 해소되지 않는 한 북한주민들의 합법·불법적인 중국 왕래가 계속되고 중국왕래자가 많을수록 주민의식 변화가 보다 빠르게 확산될 것이며, 이로써 북한주민들의 민심이반과 체제 동요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최근 중동, 아프리카지역에서 발생, 확산되고 있는 ‘재스민 혁명’의 여파로 북한주민들 사이에 인류 보편적 개념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형성, 확산될 개연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

- 보편적 개념의 인권의식 형성 및 확산은 중·장기적으로 주체사상, 선군사상 등 통치이데올로기의 무력화를 초래

북한의 사회경제 변화와 김정은 체제의 전망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변화 예고

-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북한은 파격적 행보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음
 - 북한 관례상 매우 이례적으로 퍼스트레이디 전격 공개, 모란봉악단의 공연에 미키마우스나 곰돌이 푸 복장 등장 등
- 이는 김정은 체제의 안착을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도 있음 : ‘김정은 체제는 뭔가 다르다’. ‘변한다’ 등 차별화 전략
 - 김정은 체제의 최대 고민은 경제문제 해결 : 경제성장률 저조, 물가폭등, 환율상승, 시장 확산 등
 - * 경제성장률 : -0.9%(2009), -0.5%(2010), 0.8%(2011)
 - * 물가폭등 ; 쌀 1kg 4천원(노동자 한달 급여 4천원으로 쌀 1kg밖에 살수 없는 상황)
 - * 북한 돈 가치 하락 : 환율 상승(1달러=북한 돈 5천원)
 -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 사회 및 주민들의 동요가 서서히 일고 있음 : 주민들의 생활경제에 대한 불안 확산(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
 - 가뭄, 수해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 급증
 - * 북한 주민의 약 700만명 정도가 식량난과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며, 그 중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 일반 노동자 및 농민 등은 심각한 상황임
 - 북한 지도부로서는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작용

◎ 경제문제로 인한 북한 주민 생활 및 의식변화

- 화폐개혁(2009. 11. 30일) 이후 북한 사회의 혼란은 여전함. 특히 최근 ‘6.28 방침’이 곧 발표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제2의 화폐개혁이 아닌가하고 불안

- 정책적인 혼선,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조치 강행, 정책 불신 등
 - 배급제 붕괴, 국영상점 기능 상실,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식량과 생필품 구입 차질 --> 물가 폭등
 - 주민들간 불신이 더욱 커짐
 - 주민들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어 당국의 통제 무시
 - * 접경지역 통제, 시장 통제 강화로 주민-정부간 갈등 표출
- 생계형 불법 행위 만연
- 근로자는 기업소 결근하고 개인 돈벌이에 나섬 : 기업소에 뇌물 월 3000원 주면 출근 도장 찍어줌(근로자와 기업 공생 관계 형성)
 - 기업소는 이런 돈을 모아서 자재 구매 후 부분적으로 공장 가동
 - 메뚜기 시장 성행 : 검열대에 걸리면 뇌물주면서 단속 피함
 - 돈 벌이 목적으로 중국 방문 : 뇌물로 여권 및 사증 발급
 - 군인 생활도 어려워지면서 불법 행위 : 군용 차량을 운행하여 돈벌이, 민간인 식량 탈취 등
- 전기사정 악화로 불편한 생활
- 지방의 경우 1주일 2~3일 정도 하루에 1·2시간대만 공급
 -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은 전시품에 불과
 - 충전지 확보 열풍 : 개성공단 근로자의 충전 성행
 - 전기료 납부와 관련하여 당국과 충돌 : 당국은 전기는 안주고 전기료만 부과
- 북한 여성 근로자의 일 부담 가중
- 경제력 상실한 가장 증가 → 가계를 책임지는 여성 증가
 - 고된 일에 시달림 :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가사일과 개인 장사로 돈벌이하면서 가족 생계 책임
 - * 개성공단 여성 근로자의 평균 수면 시간 : 3~4시간
- 휴대폰의 확산에 의한 생활 변화
- 현재 북한 휴대폰 보급 약 150만대(금년까지 200만대 예상)
 - 휴대폰을 생활 도구로 활용 : 정보교환(물가, 단속원 등)
 - * 상인들은 휴대폰으로 비싸게 팔 수 있는 시장 정보를 서로 알려주고, 주민들은 보다 값싼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 정보 전달

- 북한 주민들의 남쪽 물건 선호 현상
 - 전자제품(밥솥 등), 여성 화장품, 초코파이, 간장 등 남쪽 물건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몰래 남쪽 물건 갖기 확산
 - CD가 불법 반입되면서 남쪽 드라마 인기 등

◎ 향후 전망

- 김정은 시대에 외자 유치와 인민생활 향상을 내세운 제한적인 개혁·개방 확대 추진
 - 전면적 조치보다는 거점식 개발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판단
- 장성택 방중 이후 북중간 경제협력 확대 예상
 - 나선특구, 황금평·위화도 개발, 북한 인력 송출사업(12만명), 양국간 물자 및 인력 교류 확대 등
- 김정은의 새로운 경제관리 조치 시행 : 시장경제 요소 확산
 - 9월말 ~10월 초, 제5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공개
 - 3개월 정도 시험기간(6월~8월)을 거쳐 수정 보완 후 최종 결정 : 2002. 7.1 조치와 화폐개혁 실패 교훈, 주민들의 여론 수렴, 부작용 사전 체크 후 보완
 - 2013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예상

<북한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추론 내용>

	주요 내용
농업분야	- 협동농장 분조규모 축소: 10~24→4~6명 - 가족농(7:3 분배) 및 기업농 육성 - 시장 판매 및 소비 보장 - 종자, 비료, 농기구 등 국가 초기 공급
기업분야	- 원자재 조달, 생산, 판매, 가격 결정의 독자성 - 독자적 경영이익 창출 - 근로자 고용 및 정리 등 자율성 강화
시장분야	- 암시장 등 시장을 공식화·제도화 -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서 거래 - 시장 가격 적정 형성 : 물가 통제
금융분야	- 국제금융거래 가능한 은행 설립 - 예금 및 대출 제도 시행 - 외화사용 부분 허용 : 환율 통제 - 금융전산망 구축 등
외자유치 분야	- 외자 기업 우대책 마련 : 조세 등

-
- | | |
|--|--|
| | - 외자기업 경영의 시장원리 적용
- 이익 송금 자유화, 투자자산 보호 등 |
|--|--|
-

- 북중경협이 확대되고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면 북한 사회 및 주민들의 의식은 더욱 달라질 것임
 -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개방 정책은 우리에게 기회

- 북한의 변화에 맞춰 우리의 대북 접근도 달라져야 할 것임
 -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을 위한 대북경협 적극 추진
 -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면서 남북간 이질감을 줄이는 방안 강구
: 개성공단 확대,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한 인적 접촉 활성화, 제3국 현지 공동시찰, 북한 시장경제 연수원 설립 및 프로그램 개발 등
 - 북한 주민을 위한 통일정책 종합 플랜 수립 등

현 북한 권력구도는 장성택 섭정체제

최선영(연합뉴스)

◎현재 북한의 권력구도는 외형적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점에 서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권력을 장악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섭정체제로 평가할 수 있음

-장성택의 중국방문 공개는 장성택 섭정체제의 현 주소를 잘 드러냄

약 50명의 대규모 대표단 구성, 북 매체의 방중 공식 보도는 섭정통치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자신이 실질적인 권력자임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현 시점에서 김정은은 영국과 일본의 왕처럼 김씨 세습체제의 상징적인 왕일 뿐이며, 장성택은 영국과 일본의 총리처럼 실질적인 통치자로 평가됨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의 공개와 김정은 부부의 공개활동을 장성택 섭정체제에서 다른 관점으로 들여다 볼 필요 있음

◎장성택은 김정일 와병 이후부터 김정일의 사망에 대비해 자신의 측근들을 권력 중심에 포진, 권력 장악 준비를 면밀히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음

-측근이었던 리영호는 2009년 2월 총참모장으로 급부상한데 이어 2010년 9월 당중앙 군사위 부위원장 및 정치국 상무위원 승진 등 서열 급상승

-김정일 생전에 측근인 최룡해가 대장 칭호를 받음으로써 향후 그를 군부 핵심으로 내세우기 위한 명분 마련

-장성택의 심복인 현영철도 2010년 9월 김정은 공식 데뷔한 3차 당대표자회 앞두고 김정은 김경희 최룡해 등과 함께 대장 승진

-특히 장성택은 김정일 생전에 김정은 등과 함께 대장 계급장을 달아 군부 장악의 명분을 쌓았으며, 다만 김정일 생전시 자신에게 쏠리는 시선을 막기 위해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장성택은 4월 4차 당대표자회를 기점으로 자신의 측근들을 권력 중심에 전면 배치함으로써 섭정체제를 완전히 구축했다고 볼 수 있음

-최고통치기구인 국방위원회 서열은 장성택의 섭정체제 보여줌

4차 당대표자회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못박음으로써 국방위가 여전히 최고통치기구임을 명시

과거 군 서열 1위였던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국방위원으로 밀려났고, 대신 헌법상 김정일→김정은→장성택 순으로 된 국방위 서열은 장성택의 지위, 장성택의 섭정체제를 잘 보여줌

-장성택의 오른팔인 최룡해를 군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에 앉힘으로써 최룡해를 통해 군 장악 통제

리영호 역시 장성택의 최측근으로 최룡해와 함께 장성택의 군부 장악 양대축이었음

리영호의 실각은 장성택 측근들 내부의 힘겨루기로, 최룡해와의 권력암투 과정에서 장성택이 최룡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관측

-리영호의 후임에 장성택이 일찌감치 준비시켰던 측근 현영철을 임명함으로써 최룡해 현영철 순위가 명확해져 장성택의 군부 장악 양대축은 오히려 더 공고해 졌다고 볼 수 있음

◎장성택 섭정체제에 걸림돌 인물들 제거 또는 주요 보직에서 제외

-장성택은 섭정체제에 큰 걸림돌이었던 국가안전보위부를 대수술하기 위해 25년간 공적이던 보위부장에 측근인 김원홍을 앉히는 파격인사 단행

그동안 보위부 내에서는 보위부장을 김정일이 상징적으로 겸임한다는 인식이 공유돼 있었고 이는 김정은 후계자 내정 직후에도 이어져 김정은을 ‘우리 보위 부장동지’로 호칭

-이에 앞서 작년 장성택은 보위부 부부장 중 핵심이었던 류경을 보위부 수뇌 부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본보기로 간첩죄를 씌워 총살한 것으로 알려짐

-이어 우동측도 제거됨으로써 보위부는 물론 북한 고위간부 모두에 장성택에게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사실상 경고한 셈

-강관주 강석주 현철해 김영춘 등 김정일 시대 핵심간부들의 보직 이동

◎장성택 섭정체제 전망

-김정은이 국정 및 정치적 경험이 없는데다 장성택의 노련한 국정 장악력으로 섭정체제는 당분간 큰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고위층 내에서 개별 간부가 어떤 세력을 구축하고 있지 않고 류경 우동측 제거 등을 통해 장성택에게 저항할 수 있는 개별 간부도 별로 없어 보임

-장성택은 섭정체제 유지를 위해 군에 대한 장악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이를 위해 핵보유국 고수와 선군정치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동시에 경제난 해소와 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일련의 경제조치를 점진적으로 취하면서 외자유치에 총력할 것으로 전망됨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정권 교체에 맞춰 남북관계 개선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둬으로써 외화난 및 경제난 해결의 탈출구로 삼는 반면 북미관계는 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핵문제를 통해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됨

북한사회 전망

한기범(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객원교수)

◎ 현재 추세의 연장선

○ 당국과 사회; 각자 방해 않고 살아가는 미묘한 관계 형성

-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 주민들의 기본생활이 향상되고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당국의 일반 주민들에 대한 배급기능은 여전히 와해된 상태. 주민들은 당국에 의지 않고 자력생존의 방법을 터득한지 오랜 세월이 흘렀음. 당국이 권력에 도전하지 않는 한 시장에 의존해 생계를 꾸려가는 주민들을 방치하고 있듯이, 사회는 당국에 '알아서 살아갈 테니 간섭하지 마라'고 주문하고 있음. 당국과 사회는 지난 20년간 수차례 긴장관계를 경험하면서 미묘한 질서를 정착시켰음.

○ 공안통치.정치 과잉으로 인한 억압구조 하에 불만 누적

- 김정은 등장이후 북한 사회는 정치의 빈번한 동원으로 생존에 투자할 많은 시간들을 박탈당했음. 김정일 애도, 대남 쫄기대회, 3김(金) 생일 및 추대행사, 국가적 노력동원 참가 등으로 텃밭을 일구고 장사를 해야 할 시간들을 빼앗겼음. 공안기구는 비사검열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이동과 모임을 주시하면서 새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이견(異見)을 감시했음. 새로 교체된 지방간부들은 개국공신임을 자임하면서 주민들을 더욱 귀찮게 했음. 생활현장에 대한 간섭과 억압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정치의 기세에 눌러 불만을 터트리기가 어려웠음.

○ 평양과 지방, 축재자와 빈곤층 간의 상대적 박탈감 증대

- 당국은 2012년에 경제 강국의 문패를 달겠다고 호언하더니 대경축일이라고 선전하던 4.15 당일에도 전인민적 배급에 실패했음. 지방 주민들은 '국상(國喪)'을 당했기 때문에 불만을 자제하려 했더니 선택된 계층이 사는 평양에 국한해 경제 강국을 추진하고 있음이 드러나 배신감을 느꼈음. 아파트 건설, 도시치장, 복지혜택 등 풍악소리는 평양에 국한되었음. 새 지도자 김정은도 평양시내 백화점, 소학교, 동물원, 유희장을 둘러보았을 뿐 수해를 입은 지방주민들의 통곡소리는 외면했음. 옆집은 지방간부와의 연줄로 돈벌이에 성공했는

데, 자신은 그날그날 풀칠하기에 급급해 늘 가족에게 미안했음. 고드럽게 사는 사회가 아님은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 무능한 정권에 대한 반감과 새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혼재

-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정은이 뭔가 자기 아버지와는 다를 것이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음. 젊은 지도자가 품을 잡으려 하기 보다는 말단 병사나 인민들과 손을 잡고 웃거나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간부들에게 호통을 쳤다는 소식도 들리고, 날라리풍이라고 금지했던 서구풍 악단공연도 볼 수 있게 해주었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인지, ‘인민들의 허리띠를 더 이상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 ‘협동농장을 가족끼리 농사지을 수 있도록 나눠 주겠다’, ‘지방의 공장.기업소들을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소리가 빈말이 아닐 수도 있다고 믿어보기로 하였음.

○ 세뇌교양과 지원감소로 외부세계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

- ‘미제와 남조선은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국상에 남조선 인민들의 애도표시를 방해하였고, 최고 존엄에 대한 신성모독을 반복하고 있다. 동포의 정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우리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 매게 한 것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여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었다.’ 주민들은 이 같은 북한 당국의 선전에 대해 동조할 가능성이 높음. 북한 당국이 한국 당국에 대한 적개심 표현 방법이 매우 구체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대남 규탄행사가 주민들의 실생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임.

● 변동 요인

○ ①당국과 사회 간 탈구(脫句)현상의 심화, ②정치 과잉에 따른 사회적 불만 누적, ③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④무능한 정권인식 하에서도 김정은에 대한 막연한 기대, ⑤적대적 세계관의 증대로 요약되는 북한사회 구조와 의식세계가 앞으로 5년 내에 어떤 변화모습을 보일 것인가.

○ 북한사회의 변동요인을 당국의 경제.사회관리 정책, 사회자체의 변동요인 누적, 외부의 관여확대로 인한 파급효과로 나누어 본다면 <당국정책> <외부관여> <사회 자체의 추동력 순으로 작동될 것으로 전망됨.

- 시장에서의 학습효과, 당국의 무능과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반감, 이에 따

큰 체제변화 압력이 5년 이내에 노골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음.

○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민생개선 노력의 한계, 경제개혁 시행착오의 반복과 부작용 확산으로 결과적으로는 자력생존에 대한 간섭과 불평등 구조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정치와 사회의 긴장관계는 확대 재생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한 당국에 올인하기 보다는, 북한주민들의 의식세계를 각성시켜 당국에 대한 변화압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기적 포석의 정책수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봄. 적극적 관여(지원과 접촉면 확대) → 북한 민심사기.의식전환(mind change) →정권 개혁개방(regime evolution) 압력. (8.23.한)